

#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역대 최대

### 여름철 에어컨 등 냉방가전제품 구입 늘어

### '가정의 달' e쿠폰 서비스·여행도 영향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에어컨 등 냉방 가전제품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온라인쇼핑 월간 거래액이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5월 온라인쇼핑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증가한 11조263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1년 1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

상품군으로 보면 음식서비스(90.7%), 가전·전자·통신기기(29.2%), 음·식료품(29.0%) 거래가 1년 전보다 증가했다. 4월과 비교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7.3%), 서적(-10.4%) 등에서 감소했으나 e쿠폰서비스(22.2%), 가전·전자·통신기기(15.9%), 여행 및 교통서비스(7.7%) 등에서 늘었다.

민경삼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여름철에 대비해 냉방 가전제품이 많이 팔렸다"면서 "올해는 3~5월 미리 에어컨과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 냉방 가전제품들을 구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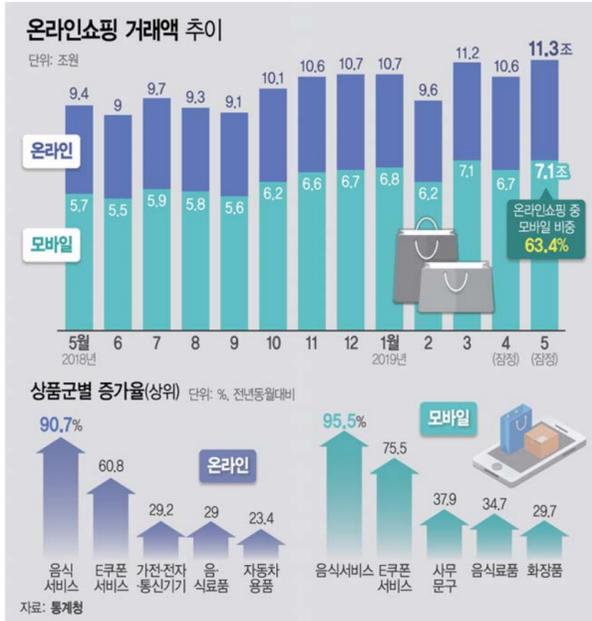
여기에 가정의 달 영향으로 e쿠폰서비스와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1년 전보다 25.9% 늘어난 7조1450억 원을 기록했다. 2013년 1월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로 조사됐다. 전월보다도 6.9% 늘어났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63.4%로 전년 동월(60.3%)보다 3.1%포인트(p)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을 보면 음식서비스(95.5%), 음·식료품(34.7%), 가전·전자·통신기기(25.8%) 순으로 늘었다.

전월대비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10.6%), 서적(-10.3%) 등에서 감소했으나 가전·전자·통신기기(17.4%), 여행 및 교통서비스(8.7%) 등에서 거래액이 늘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71.7%), 식품(68.1%), 생활(64.7%) 순으로 높았다. 세부 항목



별로 보면 음식서비스(94.6%), e쿠폰서비스(88.5%), 가방(75.9%) 순이었다. 온라인쇼핑 취급상품별 위별 거래액은 종합물이 1년 전보다 20.1% 증가한 7조5204억 원을, 전문물은 19.2% 증가한 3조7433억 원을 기록했다. 운영형태별로 보면 온라인 물은 22.0% 증가한 7조6689억 원, 온·오프라인병행물은 15.2% 증가한 3조6049억 원을 보였다.

## 갈치 금어기...식탁엔 더 두툽한 갈치 등장

### 이마트, 모로코산 갈치 원물 1마리당 1m 길이

### 롯데마트, 작년 겨울 조업한 선동갈치 판매



이달 한 달간 갈치 금어기에 돌입하면서 유통업체들이 저렴한 수입 갈치나 선동 갈치 등을 선보이고 있다.

3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이마트는 국내산 갈치보다 2배 가량 두툽한 초대형 모로코산 갈치를 4일부터 약 일주일간 판매한다.

원물의 1마리 당 길이는 1m, 무게는 1kg에 달한다. 이마트는 머리와 내장 꼬리 등을 제거한 후 먹기 좋은 6토막 크기로 잘라 판매한다. 손질 후 상품 길이는 70cm 가량, 중량은 740g 내외다. 기존 이마트의 주력 국산 갈치 크기는 300~400g 가량이다.

모로코산 갈치는 다른 수입산 갈치에 비해 맛과 향이 국내산 갈치와 유사하고 살집이 도톰해 식감이 풍성하다. 모로코 현지에서 절단 작

업까지 마친 후 냉동 상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비늘의 은색 빛깔이 살아있어 국내산 은갈치와 가장 비슷하다.

이마트 이마트 수산팀장은 "갈치는 국민 생선인데다 국산물의 어획량이 늘수록 갈치로 대체할 수 있는 갈치가 향후 노르웨이인 연어나 고등어처럼 국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수입 수산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살집이 연중 살집이 가장 두툽하고 품질이 좋은 겨울 갈치(지난해 10~12월 조업된 갈치)를 산지 수협과의 직거래와 비축 과정을 통해 평년 대비 30% 저렴한 가격대로 준비했다.

현재 롯데마트에서 주력 판매 중인 국산 선동갈치는 500g과 400g 내외다. 가격은 마리 당 각각 1만 7800원, 9800원이다.

##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제시

### 중소·소상공인 "이게 감내할 수준이냐"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시급 1만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자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 22개 단체는 3일 논평을 내고 "노동계가 지난 2년간의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2020년 인상률을 19.8%로 제시한 것은 현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년간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부진과 경영난 속에서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 왔다"면서 "이동안 우리 중소기업인은 직원 대신 가족을 대체해오기도 하고 사업규모를 줄이기도 했으며, 그마저도 힘들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이제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



도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어섰으며 "과연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노동계의 주장처럼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330만 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업종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 원에 불과하다"며 "언제까지 이 같은 근로자와 소상공인간 양극화를 바라만 볼 것이냐"고 물었다.

## 휴가철·복날 긴 7월 '축산물 가격' 하락

### 소비자 웃고 농가 울고

휴가철·복날 긴 7월 '축산물 가격' 하락...소비자 웃고·농가 울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고 초복과 중복이 긴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7월을 맞아 한우를 비롯해 돼지고기, 오리 등 축산물 가격을 관측한 결과,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소비자는 반기는 반면 농가는 울상이다.



### 계 마릿수 증가 가격 '하락' 전망

닭고기는 올 하반기 들어 공급 과잉으로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닭고기 가격은 초복과 중복 수요일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상승하겠지만 도계물량 증가로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7월 일평균 도계 마릿수는 육계와 삼계 사육마릿수가 늘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도계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와 작업일수 증가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8.5% 많은 1억1642마리로 나타났다.

7월 생계 유통가격은 도계 마릿수 증가와 생산성 회복으로 전년 1467원 보다 낮은 kg 당 1100~1300원으로 예측됐다.

하반기 병아리 생산량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아 1세 미만 마릿수가 증가하고 지난해 늘어난 1세 미만 마릿수 영향으로 9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2.1% 증가한 308만3000마리로 예측했다.

### ◇한우 가격= 전년 수준 유지 '보합세'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7월 한우 도축 마릿수는 전년 5만3000마리와 비슷한 5만 2000~5만4000마리로 예상된다.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1만 7696원 수준인 1만7200~1만7900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9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향후 한우 사육 마릿수는 송아지 생산 잠재력이 높아 1세 미만 마릿수가 증가하고 지난해 늘어난 1세 미만 마릿수 영향으로 9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2.1% 증가한 308만3000마리로 예측했다.

### ◇돼지= 사육량 증가로 가격 하락 전망

국내 돼지 사육량 증가로 7월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7월 돼지고기 kg당 도매가격이 4100~4300원에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7월 kg당 도매가격(5120원)보다 16.0~19.9% 하락하는 것은 물론 전년(5044원)보다도 낮을 것으로 관측됐다.

가격 하락은 돼지 사육 증가에 따라 7월 등급판정 마릿수가 135만~137만 마리로 전년보다 4.6~6.1%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도매가격을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했다.

6월 돼지 전체 사육 마릿수는 모돈 수가 전년보다 0.1~2.0% 증가함에 따라 자돈 생산도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2.2% 증가한 1135만~1155만 마리로 추정됐다.

◇닭(육계)= 병아리 생산·도

### ◇오리=생산량 증가로 산지가 격 '하락' 전망

7월 오리고기 생산량은 병아리 입식 증가로 도매 마릿수가 늘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7~2.9% 평년 대비 5.5~6.7% 증가한 1만 1780~1만1919으로 전망됐다.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전년 같은기간 6298원 보다 낮은 생체 3.5kg당 5500~6000원(축산물 품질평가원 발표 가격 기준)으로 예측됐다.

오리고기 냉동 재고량은 올해 초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냉동 재고량이 많은 것은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오리 사육제한에도 불구하고 도매 마릿수 증가로 산지가 격 약세가 장기화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심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